# 전통문화·남북교류 文 공약, 불교계 '긍정효과'

## 문재인 대통령 당선, 불교계에 미칠 영향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사진〉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놓은 불교와 전통문화 관련 공약 이행에 대한 불교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 공약 중 중에서도 불교계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교류 재개다. 이는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를 복원한 조계종·천태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근혜 前대통령 집권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이하면서 대표적 민간교류인 남북 불교계 교류 역시 단절됐다. 그동안 조계종과 천태종은 북한에 사찰을 복원하고, 복원 기념일에 맞춰 북한을 방문해 합동다례재를 올리곤 했다.

특히 신계사의 경우 2~3년 전 폭설로 대웅보전 암막새가 탈락하고, 요사채인 수승전 지붕에 굴곡현상이 발생하는 등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시보수를 했지만 이후 북한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더 이상의 교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올해가 신계사 복원 10주년인 데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남북민간교류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박재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팀장은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공약에서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워낙 오랫동안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 "오는 10월 신계사 10주년 행사가 열리는데 이를 기점으로 남북불교교류가 새롭게 도약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신계사 보수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방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조선불교도연맹서 자체적으로 보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 되는대로 조불련과 협의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로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국가기념일인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해야 한다는 불교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석가탄신일보다 부처님오신날이 좋은 우리말이지 않나. 더 다정하게 느껴진다. 이 부분은 당장 바꿔 부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교계서도 이와 관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서 기념일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다. 불교계는 1975년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이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왔고, 한글로 사용할 때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전통사찰 중복규제 해소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전통문화·문화재와 관련된 공약에 힘을 실었다. 특히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는 향후 불교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제안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사찰 중복규제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에서는 발전을 위한 국가 책무 등이 명시돼 있으나 타법에서 규제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부처별로 중복돼 있어 한 가지 규제를 해소한다고 해도 또 다른 규제로 인해 해소 효과가 없다고 조계종은 주장했다.

### 현대차 GBC, 불교계 의견 반영

문 대통령은 불교계 현안 중 하나인 봉은사 인근 현대자동차 글로벌 신사옥(GBC) 건립과 관련, 불교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교계 언론 인터뷰서 피력하기도 했다.

현대차 GBC 건립 사업은 최근까지 조계종과 현대차 측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달 17일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와 서울시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갈등 해소에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립공원 사찰입장료 문제 해결 △전통문화자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문화재 방재 종합대책 마련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민간국유문화재 예산 형평성 확보 △문화재 도난 시효 폐지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文 대통령의 불교·전통문화 공약**

- 南北 관계개선 통한 교류 확대
-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
- 전통사찰 중복규제 해소
- 현대차 GBC 건립에 불교계 의견 반영
- 국립공원 사찰입장료 문제 해결
- 전통문화자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 문화재 방재 종합대책 마련
-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 민간국유문화재 예산 형평성 확보
- 문화재 도난·멸실 예방 위한 시효 폐지

## 25회 불교언론문화상 8월 3일까지 접수

### 시상식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 및 후보자를 접수한다.

방송(TV·라디오)·신문·뉴미디어·불교언론인상·특별상 등 5개 부문에 대해 접수하며, 방송은 프로그램, 신문은 기획 및 보도기사, 뉴미디어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 및 작품을 시상한다. 불교언론인상은 공로에 따라, 특별상은 방송·신문·영화·광고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선정한다. 출품 대상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다.

응모는 직접응모와 추천응모로 나뉘며 작품개요서 및 추천서 1부를 공통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하며 9월 중순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상식은 9월 2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릴 예정이다.

불교언론문화상은 지난해부터 상의 훈격을 높이고, 수상자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고자 상금규모 일부를 증액해 수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품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시상하는 대상 1작품에는 상패와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불교언론인상(1인 500만원)과 특별상(3작품 각 300만원)을 제외한 각 부문별(방송·신문·뉴미디어)로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불교언론문화상은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시상식이다. 1993년 대한불교신문사와 보리방송모니터회가 공동으로 발의해 제1회 보리방송문화상 첫 시상식을 개최한 후 2004년(제12회)부터 상의 권위와 내실을 기하고자 조계종 총무원과 (사)보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05년부터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언론문화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데 이어 2006년부터 종단사업으로 진행돼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 신행혁신운동, 필수 신도교육에 포함

### 조계종 포교원, '종단 필수교육 강사 간담회'

조계종이 각 신도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종단 필수교육 연수 교과목에 '신행혁신' 운동이 포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도전문교육기관 강사 중 '종단 필수교육 연수'를 담당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필수교육 연수 방안을 공개했다.〈사진〉

종단 필수교육 연수는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각 불교대학 수강생들이 조계종 역사 및 역할, 신도품계제도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초기 1박 2일 교육연수로 진행됐지만 2013년부터 당일교육으로 변경, 시행돼 왔다.

포교원은 올해부터 '교구본사 중심체제'를 구축하고 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지역 불교대학 종단 필수교육을 진행토록 변경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원불교대학 학장 등안 스님과 불광사 전임교수 범준 스님, 전국 교구본사의 포교국장 스님 등 종단 필수교육 강사스님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강사스님들은 기존 교과목인 '종단의 이해와 나아갈 길', '신도종책과 품계제도 안내' 외에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강사 범준 스님은 "불교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종단의 표준화된 교육이 있었으면 했다. 신행문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행혁신 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신행혁신을 통해 불교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전국 140여 곳 불교대학의 불자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종단 필수교육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종단필수교육은 2017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43회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대학에서 지역연합, 본사연합, 단독시행 등 방법과 일정을 택해 신청하면 포교원에서 교과목 선정 및 강사 등을 지원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종단 최고지도자 위한 특별한 연수교육원

### 6월 종사·명덕 특별과정

조계종 종사·명덕 법계(승납 30년 이상)를 지닌 스님들을 위한 특별 지도자과정이 운영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최고지도자 특별과정'을 실시한다.

'종단최고지도자 특별과정'은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불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개설됐다.

특별과정에는 △불교와 건강(김용진 경희봄한의원장) △최고경영자로 가는 길(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장) △한국사회와 복지(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정치와 오늘의 한국사회(박원석 前국회의원) △불교적 경영의 패러다임(임해성 〈토요티즘〉 저자)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종사·명덕 스님은 교육원 연수교육 사이트와 전화 상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육비는 20만원. (02)2011-1807 **신성민 기자**


